

영어 ‘re-verb’와 ‘verb again’, 한국어 ‘다시’와 ‘또’에 나타난 의미 특징 비교

김 지 희

단독 / 대구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접두사 're-'와 부사 'again'의 의미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의 're-verb'와 'verb+again', 그리고 한국어 '다시'와 '또'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다시'와 '또'가 유발하는 의미 차이를 'restitutive'와 'repetitive'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둘째, 두 개의 'restitutive'와 'repetitive'가 통사적 위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자의 경우 해당 event를 수식하는 부사는 동사가 이끄는 VP 안에 들어가고, 후자의 경우 VP 외부에 나타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re-verb'와 'verb+again' 모두 동사가 나타내는 event를 반복하는 것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갖지만, 're-verb'는 'verb+again'보다 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re-verb'는 동사로 대표되는 event를 겪어야만 가능하며, 그 event의 결과로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

주제어 : re-verb, verb+again, '다시'와 '또', restitutive, repetitive, 화용적 의미

1. 서론

영어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다시’와 ‘또’가 갖는 어휘 범주적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Traugott와 Pratt에 따르면 접사(affix)는 어근(root)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morpheme)라고 하였다(1980: 400).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접사(affix)의 종류는 크게 접두사(affixes), 삽입사(infixes), 접미사(suffix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두사는 ‘in-’ ‘dis-’ ‘re-’ 등 기존의 동사 앞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Hornby, 1974: 656). 접사의 결합은 인간의 언어가 형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는 가장 빈번하고 널리 관찰되는 현상이다(Szymanek, 1989: 62). 접사는 결합한 동사가 가진 의미의 반대를 표현하거나, 부정 혹은 행동의 반복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refill’, ‘rearrange’, ‘recapitulate’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는 의미이다.

영어에도 한국어의 ‘다시’와 ‘또’에 해당하는 부사는 명백히 존재한다. ‘again’, ‘also’, ‘too’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다시’와 ‘또’의 의미는 접두사 ‘re-’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영어사전에서도 ‘re-’로 시작하는 항목에 그 수와 종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again’과 같은 부사적인 의미가 접두사의 형태로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부나 사전의 중요한 역할은 단어의 의미를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부와 어휘부의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의미와의 연관성은 분명히 드러난다(Katamba, 2006).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다시’와 ‘또’는 그 정교한 뉘앙스의 차이에서 적지 않은 화용론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영어에서도 접두사 ‘re-’로 표현되는 의미와 부사 ‘again’을 써서 표현되는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의 영역과 언어 표현의 상호관계를 의미상의 차이점에 기반하여 반복을 나타내는 접두사 ‘re-’와 부사 ‘again’을 한국어 부사 ‘다시’, ‘또’와 비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한국어 ‘다시’와 ‘또’에 대한 선행 연구 및 ‘re-verb’와 ‘verb again’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 '다시'와 '또'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은 're-verb'와 'verb again'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5장은 3장과 4장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한다. 이후 6장 결론에서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접두어와 부사의 의미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비되는 영어 접두사와 부사 의미구조의 특징을 살펴본다.

암시의미(connotation)라는 용어는 언어학, 특히 의미론에서 자주 사용된다. 언어 표현의 암시의미성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표시의미 (denotation) 또는 지식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암시의미는 완전히 화용론적 의미의 범주이다 (Keith Allan, 2007: 1047). 이러한 의미 화용론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에서도 부정적, 긍정적 의미가 모두 내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e-'와 'again'은 한국어 '다시'와 '또'에 나타나는 의미를 화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re-'와 같은 접두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다시'와 '또'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다시'와 '또'는 화용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윤재학, 2007: 2). 윤재학은 이 차이를 “원상 회복적 의미”와 “단순 반복적 의미”로 구분하여(윤재학, 2007: 1), '다시'와 '또'가 가진 화용론적 의미를 동사의 성격이나 다른 부사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한 바 있다. 윤재학의 의미적 관찰을 본 논문은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영어 접두사 re- 와 부사 again에 의해서 수식되는 동사의 의미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Szymanek의 견해에 따르면 're-'는 어떤 행동의 반복과 그에 따른 결과적 상태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1989: 301). 이외에도 Marantz는 이 접두사가 붙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용법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Marantz에 따르면, 're-'에

의해 파생되는 의미는 첫째, 결과상태수식(restitutive)으로 나타나며 둘째, 반복(repetitive)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Marantz, 2007: 1).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와 ‘again’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와 결과를 3, 4, 5에 제시한다.

- (1) 접두사 ‘re-’가 가지는 의미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 (2) 그 의미가 한국어 ‘다시’, ‘또’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살펴본다.

3. ‘다시’와 ‘또’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가 갖는 의미적 차이는 윤재학(2007)의 것을 대부분 수용하여 두 부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¹⁾. 일차적으로 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어감이 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으나, 아래 문장이 진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건의 흐름이 과거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두 문장 모두 필요하다.

- (3) a. 다음 달에 다시 갑시다.
b. 다음 달에 또 갑시다.
- (4) a. 수지는 다시 민수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다.
b. 수지는 또 민수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아래 문장은 두 조건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형으로 ‘다시’는 수정적 의미를, ‘또’는 추가적인 혹은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5) a. 업무 보고서 다시 복사해 오세요.
- b. 업무 보고서 또 복사해 오세요.

문장 (5) a에서 '다시'는 어떤 행위를 수정하고 대체한다는 의미이며, 복사 상태가 불량해서 불만스러움을 나타낸다. 반면, (5) b의 '또'는 업무 보고서 2부가 필요한데 실수로 1부만 제출하였을 때 더 요구하는 단순반복적인 의미에 국한된다.

- (6) a. 그래, 다시 요리하자.
- b. 그래, 또 요리하자.

문장 (6) a는 이전에 행한 요리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서 이번에는 '제대로 / 똑바로' 다시 요리하지는 수정적인 뜻을 내포한다. 반면 (6) b는 단순한 추가 행위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적 차이를 사건 의미론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시'가 수정을 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또'에 비해 '다시'는 제공되는 두 사건이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또'의 경우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고 인식되지만, '다시'의 경우 같은 사건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사 '다시'와 '또'의 다른 대표적인 차이로 기능적인 구별인 결과상태와 관련된 수식의 기능 여부를 들 수 있다.

- (7) a. 'HAMILTON'은 다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졌다.
- b. 'HAMILTON'은 또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졌다.

(7) b는 단순히 뮤지컬 'HAMILTON'이 전에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적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특정 시기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7) a는 전에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적이 있다는 의미도 있으나, 추가로 결과상태와 관련된 수식의 의미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뮤지컬 'HAMILTON'이 2015년 이후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만 공연되다가 호주 등 다른 나

라의 무대에 올려졌었고 최근 몇 주간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다시 공연된 경우에 가능하다. 이 경우 (7) b의 경우 진리조건은 거짓이지만, (7) a는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복되는 것은 되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되돌아가는 동작에 따라 발생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는 ‘결과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상태에 상응하는 영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 (8) a. 'HAMILTON' was re-performed on Broadway.
b. 'HAMILTON' was performed on Broadway again.

화용적으로 적합한 상황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위 문장과 같은 차이는 아래 (9) a, (9) b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 (9) a. 양송이 스프를 다시 데웠다.
b. 양송이 스프를 또 데웠다.

‘양송이 스프를 데우다’라는 술어는 앞서 발생한 상태인 따뜻한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a은 이전에 스프를 따뜻하게 한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요리하여 끓였던 양송이 스프가 식어서 따뜻하게 가열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9) b는 이전에 따뜻하게 데운 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래 문장 역시 맥락상 원상회복의 의미가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물리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0) a의 문장은 가능하다. 이 경우 반복적인 것은 물리치료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상태, 즉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 상태만큼 회복되어 돌아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의 수식을 받게 된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대략적인 의미이다. 물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원상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9) b와 같이 ‘또’의 경우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의미만을 전한다.

- (10) a.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시 물리치료를 받았다.
b.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또 물리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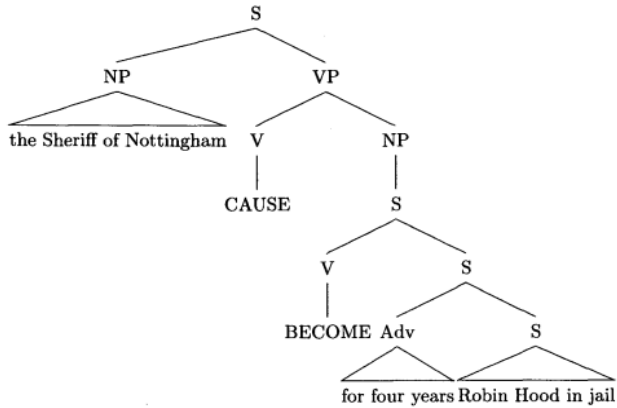
한국어의 '다시'와 '또'의 의미를 요약하면, 우선 '다시'는 수정적인 의미와 단순 반복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고, '또'는 단순 반복적 의미 전달에 국한된다. 다음으로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하지만, '또'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부사의 유형인 '다시'가 사용된 Robert Binnick의 예문을 보자(Morgan, 1969). 아래 문장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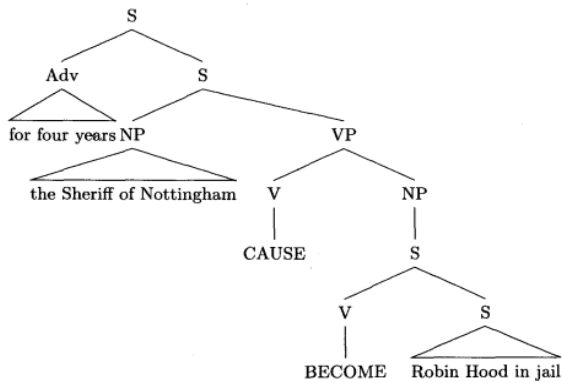
- (11) The Sheriff of Nottingham jailed Robin Hood for four years.
a. The Sheriff of Nottingham이 Robin Hood를 감옥에 넣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4년 동안 투옥되었다.
b. The Sheriff of Nottingham이 4년 동안 반복적으로 Robin Hood를 계속 투옥시켰다.

생성의미론적 전통 방식으로 수형도를 나타내면 Figure 1,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owty, 1979: 251-252).²⁾ 위 문장의 달성동사(achievement)인 'jail'은 지속형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jail'은 감옥에 있는 결과상태(head state)만을 의미하는 동사이다. Dowty(1979)는 이 문장의 시간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jail'이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내부의 결과상태가 된다는 뜻에서 아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internal adverb라고 명명한다.

< Figure 1 > 결과상태수식 (internal/restitutive reading)



< Figure 2 > 반복적 의미 (external/repetitive reading)



‘다시’와 ‘또’는 독립적인 부사로 기능할 때, 상당한 의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치가 선수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동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코치는 선수에게 동작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면서 간단히 ‘다시’라고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라고 말하면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 선수에게 문제의 동작을 다시 시행하라는 의미이지만, '또'라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동작이 교정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와 '또'의 이러한 용법은 상대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의미를 충분히 갖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은 간과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영어에서의 're-verb'와 'verb again'에 적용한다면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Re-'와 'again'의 의미

접두사(prefix)란 're-', 'un-', 'in-'과 같이 어근이나 어간 또는 어기³⁾ 앞에 첨가되는 접사(affix)이다.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어기의 품사가 변형되지 않는다. 어근에 접두사를 붙였을 때 전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접사가 없는 어근과 같은 품사이다. 그리고 분절음과 강세의 변화도 적은 편이다. 접두사는 단어의 주요 부분인 '어근' 또는 '어간'에 붙여서 단어를 시작하는 형태소이다.

re-make	un-kind	in-decent
re-read	un-tidy	in-accurate

're-'는 일반적으로 결합하는 동사가 가진 의미의 '결과상태가 다시 복원된 것을 의미한다 (Wechsler, 1987: 419).

Jack opened the door.
 Jack reopened the door.
 The door was previously open.

접두사 re-의 첫 번째 의미는 'back'이다. 예를 들어, 계획을 거절할 때 그것을 '되돌려'

버리는 것이고, 지출하는 돈을 줄이면 그것을 더 적은 금액으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다. 또한, 빛이 표면에서 반사될 때 빛은 ‘뒤로’ 구부러진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 죄자가 다시 선량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

접두사 re-의 또 다른 주요 의미는 ‘다시’이다. 예를 들어, 방에 있는 가구를 재배치할 때 다른 구성으로 ‘다시’ 정렬한다는 의미가 있다. 마라톤 선수는 힘든 경기 후 휴식을 취하며 자고 먹음으로써 ‘다시’ 재충전하거나, 문자 그대로 ‘다시’ 젊어지게 된다. 즉, 사지를 ‘다시’ 키운다. 강의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요약할 때 ‘다시’ 검토한다. 그리고 일부 종교적 신앙은 환생을 믿거나, 죽은 후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믿기도 한다.

흔하지 않은 예로, ‘redeem’과 같이 접두사 ‘re-’ 뒤에 ‘d’를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reem’을 피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reundant’ 보다 ‘redundant’가 발음하기에 훨씬 좋다.

‘re-’는 다시, 뒤로, 또는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접두사이다. ‘re-verb’가 들어간 다음 문장을 참고하자.

Please listen carefully, I don't want to repeat myself.

I need refill my water bottle before we go, it's nearly empty.

Because there was no winner the teams will replay the game next week.

I'm going to return these books to the library.

Let me review this report to make sure I understand everything.

We can wash these jars and reuse them.

We recycle all our old paper, glass and plastic.

영어 동사에 접두사 ‘re-’를 붙여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의미의 동사를 만들 수 있다. 그 특징 중의 하나는 자동사에 접두사 ‘re-’가 붙지 않으며 ‘re-’가 붙어 된 동사는 전부 타동사이다. 아래 표를 통해 접두사 ‘re-’는 ‘back’ 또는 ‘again’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re-' 와 함께 쓰이는 동사와 의미 구분

reject	throw 'back'	redeem	buy 'back'
recede	move 'back'	rejuvenate	make young 'again'
reduce	lead 'back'	recapitulate ⁴⁾	say 'again'
reflect	bend 'back'	reincarnate	return into a body 'again'
return	turn 'back'	redundant	fiow 'again' unnecessarily
revert	turn 'back'	rearrange	arrange 'again'

4.1 Restitutive 're-verb' 의 의미

접두사 're-'가 붙은 동사는 결과상태 수식동사 (restitutive verb)라고 할 수 있으며 반복동사 (repetitive verb)가 되지는 않는다. 아래 a, b 예문을 보자.

- (12) a. The shelves in the warehouse were white long before they purchased it; they plan to re-paint them (green) as soon as they can.
 b. The lid of the briefcase was open, and Shawn closed it for the first time when he brought it home. Mary then re-opened the door.

이전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re-verb는 활동의 반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활동만을 나타내는 활동 술어 (activity verbs)에서 're-verb'와 'verb again'의 해석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아래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 (13) a. *John re-smiled.
 b. John smiled again.

Lieber (2004: 147)의 견해인 “우리가 ‘다시 하다’를 의미하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반복을 다시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 (14) The lid of the briefcase was open and hasn't been touched since.
 (15) I just closed the lid and re-opened it.
 (16) I opened it for the first time, but restored it to the open state it was built in.

‘re-’는 뒤바뀔 수 없는 상황의 동사 앞에 올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미 아침 식사를 했던 행동을 되돌리거나, 이미 깨진 사물의 현상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의 ‘re-eat’을 살펴보자. ‘토사물’은 애초에 먹지 않았다. 다시 먹는 것은 그 행위의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Lieber (2004: 147)의 분석은 ‘re-’라는 접두사를 ‘동사로 표시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적 과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17) 문장의 동사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접두사는 VP 구문이 되어야 한다.

- (17) “The other day I had an incredible stomach disorder which made me vomit and then in order to get over the problem, my doctor told me to re-eat the vomit while being beaten over the head with a frozen fish by a german bodybuidler named Helga.”

Szymanek에 따르면 ‘re-’는 행동의 반복 이외에도 어떤 결과적 상태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1989: 301). 하지만 ‘re-’에 의해 파생되는 의미의 스펙트럼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를 일괄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Marantz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화용론적인 구분을 내린 바 있다. 그에 따르면, ‘re-’에 의해 파생되는 의미는 결과상태수식과 반복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Marantz 1). Marantz는 결과상태수식이 비능동격 수동주체가 요구되는 타동사의 경우보다 비대격이나 결과달성동사 (accomplishment verbs)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Marantz: 2). 여기에 Horn은 ‘re-verb’는 타동사의 목적어나 비대격에서의 잠재된 목적어를 요구한다고 살핀 바 있다 (Marantz: 2). 따라서 이런 경우, 결과상태수식 (restitution)의 의미는

문장에 나타난 의미가 최종상태 (end state)인지 상태의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Marantz: 2).

또한, 많은 연구에서 Stechow (1996)는 'restitution'의 의미가 상태 변화의 end state를 구별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다음 (18), (19), (20)의 설명과 예문은 end state를 이해하는 데 좋은 예가 된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18) 최종적인 상태가 동사의 어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a. The window re-opened, I opened the window. (end state: open)
- b. The Arctic glaciers re-melted. (end state: melted)

(19) 최종상태가 동사의 목적어에 의해 명명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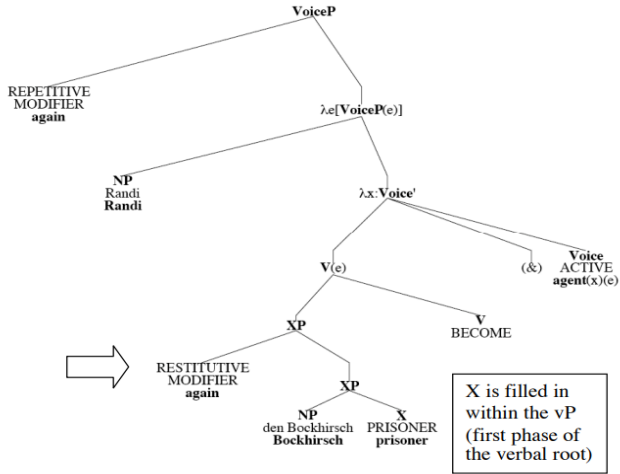
- a. I re-built the warehouse. (end state: the warehouse)
- b. I re-constructed the subject. (end state: the subject)

(20) 목적달성동사에서 최종상태가 수동적으로 명명되는 경우

- a. I re-arranged the fridge. (end state: arranged)
- b. I re-painted the outer wall. (end state: painted)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고, 이 수형도는 4.2 Repetitive verb-again의 의미를 살펴보며 참고하자.

< Figure 3 > Restitutive와 Repetitive (Marantz, 2007: 3)



4.2 Repetitive ‘verb-again’ 의 의미

발생하는 이벤트의 행위 주체가 특정화되지 않아서 기동동사가 사역동사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re-’는 endpoint로 state event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다시 수정되어 vPs의 일반적인 구조가 된다. 그리고 하위 event를 넘어선 범위의 state가 변하는 상황이 특정화되는 것은 end state 이전에 발생한다. (Marantz: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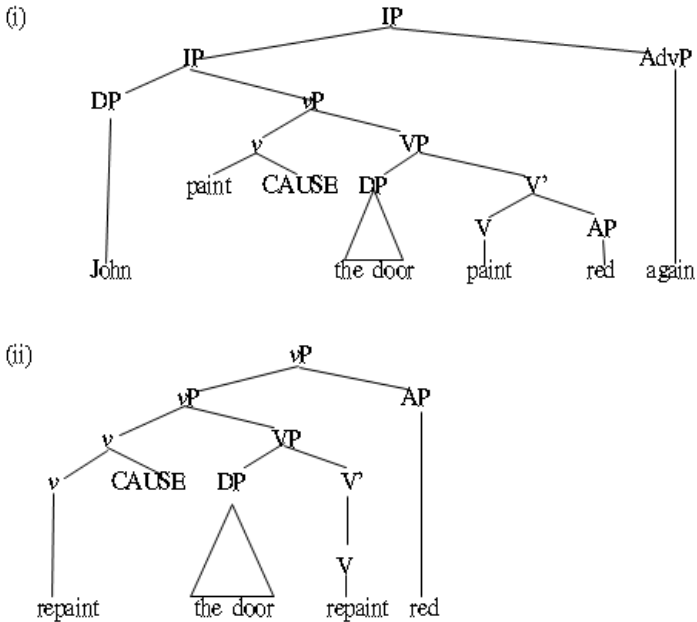
event-1 causes [NP changes to state event-2], and re- s(NP)
 state s is filled in by NP, in the case of verbs of creation,
 by the verbal root as modifier of event-1,
 in the case of verbs like paint
 by the verbal root as modifier of event-2,
 in the case of verbs like open

아래 예문을 통해 'verb+again'과 're-verb'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

- (21) John painted the door red again.
- (22) John repainted the door red.
- (23) John stuffed the refrigerator with beer again.
- (24) John restuffed the refrigerator with beer.

위 문장 (21) (22)의 내용을 수형도로 표시해보면 Figure 4 (i) (ii)와 같다.

<Figure 4>



다시 말해(22)는 그 문이 전에 푸른색이었을 수도 있고 노란색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색깔이든 칠해진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시 칠을 해서 복원한 결과 붉은

색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21)은 그 문이 전에도 붉은색이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나(22),와 같이 색깔은 관계없이 문이 페인트 칠해진다는 전제조건만을 충족해야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모호한 문장이 된다. (23)과 (24)의 의미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verb again’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목적어가 비한정적 표현일 때는 아래 (26)의 문장처럼 특정 편지 한 통을 전에 작성했는데 보내기 전에 그 편지를 완전히 다시 고쳐 쓰다는 의미가 되고, (25)의 문장은 전에도 편지를 한 통 작성했으며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작성했다는 의미를 대조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25) John wrote a letter again.

(26) John rewrote a letter.

5. ‘다시’와 ‘또’ 그리고 ‘re-’와 ‘again’의 차이

영어 동사에 접두사 ‘re-’가 붙으면 원래 동사의 의미에 ‘again’의 의미가 더해진다 (redo, rewrite, rework, recook, resharpen, rebuild etc.). 동사 ‘rebuild’는 영영 사전에서 “손상되었거나 부서진 어떤 것을 다시 짓는다”(to build something again that has been damaged or destroyed)라고 설명되어있다. 그렇다면 아래 문장의 의미는 같을까?

(27) The building was built again.

(28) The building was rebuilt.

(29) John wrote her a letter again.

(30) *John rewrote her a letter.

(31) They gave him the award again.

(32) *They regave him the award.

'give'와 같은 수여동사에 접두어 're-'를 붙여 'regive'라는 새로운 수여동사를 만들 수는 없다. 수여동사는 '어떤 것 (직접목적어)을 수혜자 (간접목적어)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이 경우 한 번 준 것은 되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어떤 것을 줄 수 없다. 따라서 regive, reprovide, rebuy, regrant, resend와 같은 수여동사에 're-'를 사용하여 의미를 변화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7)과(8)처럼 특별한 경우 수여동사에 접두사 're-'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 (33) John resent her the email message because it bounced back.
 (34) *John rebought her the flowers as he must get on her good side.

(33)의 문장에서 'resent'는 문제가 없다. 이메일은 상대가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시 보낼 수 있어서 다시 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resend'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만약 전통적인 편지일 경우 한 번 보내졌으면 다시 똑같은 편지를 보낼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동사 'resend'로 표현할 수 없다. (34)의 문장에서 한 번 꽃을 사주었으면 똑같은 꽃을 다시 사줄 수는 없으므로 동사 'buy'에 접두사 're-'를 붙여 'rebuy'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에 접두사 're-'가 붙을 수 없는 제약조건은 아래 (35)와 같이 목적어와 전치사구를 반드시 취하는 경우이다.

- (35) John put the folder on the table again.
 (36) *John re-put the folder on the table.

동사 'put'에 're-'를 붙여 'reput'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John repainted the door red', 'John restuffed the refrigerator with beer'의 'repaint'와 'restuff'는 칠하는 행위와 채워 넣는 행위의 반복만을 나타낸다. 예시 문장에서 접두사 're-'는 각각 'paint the door', 'stuff the refrigerator'로 나타내는 사건의 반복을 나타낸다. 하지만 'put the fold'는 영어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reput the

fold'라는 표현 역시 비문법적이다. 이런 경우는 'put the fold on the table again'으로 표현해야 한다. 're-'가 붙은 동사는 접두사 're-'가 붙기 전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겪은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사건을 겪은 상태로 그 대상을 되돌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접두사 're-'는 자동사에는 붙지 못한다. 다음과 같이 자동사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자.

*John reran, resang, resmiled, relaughed,...

John ran, sang, smiled, laughed,... again.

아래 문장 (37), (38), (39)의 동사들은 자동사 형태이지만 타동사처럼 're-'가 붙기 전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겪고, 그 결과로 어떤 특정 상태가 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37) The edge resharpened well.

(38) The butter ressoftens when it gets warm.

(39) The plastic rehardens when it gets cold.

윤재학은 '다시'가 동사와 결합할 때 보이는 화용론적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동사의 유형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행위동사, 완성동사, 상태동사가 그것이다. 이 각각의 동사 유형 중에, 행위동사가 '다시'와 결합하면 단순반복적 의미를, 완성동사와 결합하면 단순반복을 포함한 수정과 보완의 의미를, 그리고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원상회복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15). 일상적인 용례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처럼 '다시'는 어떤 유형의 동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화용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특정한 예문에서 '다시'가 행위의 반복을 나타낼 뿐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16). 아래 세 문장의 예를 참고하자.

- (40) 철수는 인천에 다시 갔다. (결과상태 수식 가능)
- (41) 철수는 인천에 다시 걸어갔다. (결과상태 수식 불가능)
- (42) 철수는 인천에 다시 뛰어갔다. (결과상태 수식 불가능)

반면 이러한 동사를 사용하여 영어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again'은 결과상태의 수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 (43) Jane flew to New York again.
- (44) The fox ran into the cave again.
- (45) The monster walked into the cave again.

이와 같은 차이는 '영어 구문의 경우 양태수식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윤재학은 설명하고 있다 (윤재학: 17).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시'와 '또'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맥락에서의 용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와 '또'는 모두 비난이나 질책의 어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6) 숙제가 다 틀렸잖아. 다시 해.
- (47) *숙제가 다 틀렸잖아. 또 해.

(46) (4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위의 미완성, 혹은 수정의 필요성이 보다 쉽게 감정이나 비난의 의도와 결합되어 '다시'는 '또'보다 더 빈번하게 비난과 질책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시'와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이러한 질책의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질책의 의미는 아래(48)와(49)로 구분될 수 있다.

- (48) (틀린 자세를 보면서) 다시!
- (49) (틀린 자세를 보면서) 또, 또!

(48)의 경우, ‘다시!’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다시 시도하라는 뜻이지만, (49)의 경우 ‘또!’라는 것은 단순히 틀린 자세가 반복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시’는 부사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암시적으로 동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방금 취했던 동작을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또’의 경우는 내포된 동사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청자는 그 말을 단순한 질책의 표현으로 이해할 뿐 동작을 다시 취하는 지시사항으로 이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re-verb’는 이러한 비난이나 질책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단순한 동작과 행위의 반복을 의미한다. ‘again’은 한국어의 경우처럼 비난이나 질책의 의미를 전달할 때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부정어의 형태인 ‘not again’처럼 비난과 질책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시사항을 말할 때 ‘again’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동사적인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다. 영화 <트루먼 쇼>에 등장하는 (49)의 대사를 살펴보자.

(49) Give me some lightening. Again. Hit him again.

(49)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Again’은 맥락상 바로 앞의 동사적 행위를 다시 시도하라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다시’가 ‘또’와는 달리 동사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again’은 동사적 행동을 다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한국어의 ‘다시’에 상응하는 것이지 ‘또’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반복의 부사 ‘다시’와 ‘또’ 그리고 동사와 결합한 접두사 ‘재-’가 가진 화용론적 의미의 차이를 영어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의

경우, 접두사 're-'와 'again'으로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화용론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의미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단순 반복적”, “수정적”, 그리고 “원상 회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다시’와 ‘또’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시’의 경우 행해진 동작의 반복 이외에도 그러한 동작을 ‘수정’하거나 ‘원상 회복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는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하지만, ‘또’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다. 특이한 것은 선택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반복하기 위해 사용할 때 ‘또’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다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는 ‘다시’와 달리 ‘수정적 의미’와 ‘원상 회복적 의미’를 유발하지 않고, 대부분 단순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게다가 ‘또’는 상태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과상태는 수식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또한 ‘다시’와 ‘또’는 독립적인 부사로 기능할 때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라는 의미와 행동에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접두사 ‘재-’의 경우는 단순히 동작의 반복만을 의미한다. 접두사와 부사를 각각 이용할 때 생겨나는 이러한 비난조의 뉘앙스 개입 여부는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시’와 ‘또’가 가진 의미적 차이는 영어에서 접두사 ‘re-’와 ‘again’의 용례에서 비교 분석된다. 영어의 ‘re-’는 많은 동사와 결합하여 단순 반복의 의미를 표현한다. 특히 결합하는 동사가 가진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서 ‘again’과 의미가 같게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결과상태를 수식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다시’는 특정한 동사와 결합했을 때 결과상태 수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에서 ‘again’은 결과상태 수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재학 16-17). 한국어와 영어에서 비슷한 의미적 기능을 하는 이러한 부사와 접두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또’, ‘again’ 등은 맥락에 따라서 비난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re-’, ‘재-’ 등의 접두사를 사용할 경우 그러한 화용론적 의미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verb+again’과 ‘re-verb’는 기본적으로 해당 동사가 나

타내는 사건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re-verb’가 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즉 ‘re-verb’는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겪은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그 사건을 겪은 결과상태로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Wechsler는 ‘re-’가 목적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의미를 전제하면서 주어진 맥락에서 목적달성으로 해석되는 데 관여하는 논항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다시’가 ‘원상 회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바꾸어 말하면, ‘다시’에 동사의 행동이 반복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또’는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Notes

- 1) 한국어 ‘다시’와 ‘또’의 의미적 차이를 선행연구인 윤재학의 것을 대부분 수용하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사용한 예문들은 본 연구자의 것이다.
- 2) 익명의 심사자는 아래 수행도가 의미적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평을 하였다. Figure 1에서 ‘for four years’라는 measurement adverb가 VP에서 ‘S’가 나타내는 상태 즉 STATE (John, in Jail)을 수식하고 있다. 즉 한 특정 상태의 시간적 길이가 4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Figure 2는 이 부사가 문두에 출현하여 VP 밖에서 전체 사건 CAUSE (BECOME(STATE (John, in jail)))을 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수행도는 한 상태가 4년간 지속되어 상태의 반복을 나타내는 ‘restitutive reading’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문두의 ‘for four years’는 CAUSE-사건이 4년 동안 반복되어 동일류 (same type) 사건이 반복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repetitive reading을 나타낸다.
- 3) 여기(base)란 모든 종류의 접사가 첨가될 수 있는 단어를 총칭한다. 여기에 첨가된 접사들은 통사적인 이유에서 선택된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이거나, 혹은 어기의 의미나 문법 범주를 바꾸는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일 수 있다. boy와 같이 아무것도 붙지 않은 어근도 어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s와 같은 굴절접사를 붙여 복수인 boys를 만들거나 -ish와 같은 파생접사를 붙여 boy를 형용사 boyish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어근은 어기가 된다. 여기는 굴절형태부의 환경에서만 어간(stem)이라 할 수 있다. (Katamba, 1998)
- 4) going ‘back’ to the head of what you’re saying

참 고 문 헌

- 김진형, 김경란. 『형태론』. 한국문화사, 2006.
- 남기심. 『국어문법의 시제 문제에 대한 연구』. 탑출판사, 1978.
- 윤재학. 「다시'와 '또'」. 『언어와 정보』 11권 2호, 2007, pp. 1-22.
- Allan, Keith. "The pragmatics of connotation." *Journal of Pragmatics*, vol. 39, 2007, pp. 1047-57.
- Beck, S. and K. Johnson. "Double Objects Again". *Linguistic Inquiry*, vol. 35, no. 1, 2004, pp. 97-124.
- Dowty, David.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Kluwer Publishers, 1979.
- Horn, L. *Affixation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CLS 16, 1980, pp. 134-146.
- Katamba, Francis and John T. Stonham. *Morphology*, 2nd ed., Palgrave, 2006.
- Marantz, Alec. "Restitutive re- and the First Phase Syntax/Semantics of the VP".
Talk given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7.
- _____. "Roots, re-, and affected agents: can roots pull the agent under little v."
Talk given at the 2009 Roots Workshop, University of Stuttgart, 2009.
- Morgan, Jerry. "On Arguing About Semantics." *Papers in Linguistics*, vol. 1, 1969, pp. 49-70.
- Stechow, A. von. "The Different Readings of Wieder'Again': A Structural Account." *Journal of Semantics*, vol. 13, no. 2, 1996, p. 87.
- Szymanek, Bogdan. *Introduction to Morphological Analysis*. Panstwowe Wydawnictwo Naukowe, 1989.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Mary Louise Pratt. *Linguistics for Students of Litera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0.
- Wechsler, Stephen. "Accomplishments and the Prefix re-." *North East Linguistics Society*, vol. 18, no. 2, 1987, pp. 419-34

Stechow, Arnin von. "Lexical Decomposition in Syntax." *Lexical Knowledge in the Organization of Grammar*, edited by Arnim von Stechow, et al., John Benjamins, 1995, pp. 81-120.

Abstract

Comparison of Semantic Characteristics of English 're-(verb) and (verb) 'again' with those of Korean 'tasi' and 'tto'

Ji-Hee Kim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o examine the semantic role of the prefix 're-' and the adverb 'again'; the other is to show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between 're-(verb) and (verb) + 'again' in English and 'tasi' and 'tto' in Korean.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this study examines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that 'tasi' and 'tto' trigger in terms of the readings of 'restitutive' and 'repetitive'. Second, it shows that the two restitutive and repetitive reading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syntactic position. That is, for the former, if any, an event modifying adverb falls within the VP headed by the verb in question; for the latter, it appears outside of the VP. Third, the current study contends that both 're-(verb) and (verb) + 'again' have in common the same function to denote the repetition of the event in question, whereas 're-(verb) is used more restrictively than (verb) + 'again'. In other words, 're-(verb) is possible only if there is an object to undergo the event represented by the verb, and it is restored to the previous state as a result of the event.

Kwy Words: 're-(verb), (verb) + 'again', Korean 'tasi' and 'tto', restitutive, repetitive, pragmatic meanings

논문투고일: 2023.05.24

심사완료일: 2023.06.13

게재확정일: 2023.06.26

이름: 김지희

소속: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사

이메일: yrkb0502@gmail.com